

# 조선업계, 고부가 선박 수주 순항… 성장 모멘텀 지속 전망

삼성重 올해 수주목표 조기 달성  
한화오션 유럽 등서 대규모 계약  
HD현대 NYK 등 글로벌 협력 강화

국내 조선업계가 고부가 선박인 액화 천연가스(LNG) 운반선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수주 흐름을 이어가며 시장 주도권을 강화하고 있다. 글로벌 에너지 시장 재편으로 LNG선 발주가 이어지는 가운데 내년 수요 확대 기대까지 겹치면서 조선업계의 수주 모멘텀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3일 영국 드루리(Drewry) 등 해운 분석 기관에 따르면 내년 발주를 이끌 선종은 LNG 운반선으로 2030년까지 약 250척가량의 발주가 이어질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국내 조선사들은 LNG 운반선 건조 기술력을 앞세워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을 더욱 끌어올린다는 방



한화오션이 건조한 200번째 LNG운반선인 SK해운사의 '레브레사(LEBRETHAH)'호 운항 모습. /한화오션

침이다.

삼성중공업은 최근 오세아니아 지역 선주로부터 LNG 운반선 2척을 7430억원에 수주했다. 이로써 올해 조선 부문 수주 실적은 당초 제시한 목표치를 넘어섰다. 이번에 수주한 선박은 2029년

3월까지 순차적으로 선주사에 인도될 예정이며 이를 포함한 삼성중공업의 올해 LNG 운반선 누적 수주 규모는 9척이다.

한화오션도 LNG선 수주를 이어가고 있다. 한화오션은 지난 18일 유럽 지역

선주로부터 총 2조5891억원 규모의 LNG 운반선 7척을 수주했다. 이번에 수주한 LNG 운반선은 모두 동일한 사양으로 건조되는 고수익 선박으로, 구매·설계·생산 과정에서의 효율성을 극대화해 안정적인 수익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HD현대 역시 LNG 운반선 수주 확대에 나섰다. HD현대는 LNG 운반선 7척을 수주한 데 이어 HD현대중공업은 최근 일본 해운사 NYK와 LNG 운반선 건조의향서(LOI)를 체결했다. LOI는 최종 계약에 앞서 계약 참여 의사를 확인하는 단계로, 이번 건은 확정 물량 4척과 추가 옵션 4척을 포함해 최대 8척 규모다. 선박 1척당 가격은 약 2억6000만달러 수준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내년을 기점으로 LNG 운반선 발주 환경이 본격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과 유럽을 중심

으로 주요 LNG 프로젝트가 다시 추진되고 있고 노후 LNG 선대 교체 수요가 맞물리면서 발주 여건이 점진적으로 좋아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신규 LNG 수출 프로젝트가 순차적으로 가동될 경우 그동안 미뤄졌던 LNG 운반선 확보 수요가 단기간에 집중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여기에 카타르의 선단 교체 수요 등을 포함하면 내년에는 최대 100척 수준의 LNG 운반선 추가 발주가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내년에는 신규 LNG 프로젝트의 생산 개시가 잇따르면서 LNG 물동량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LNG 운반선 수요도 함께 늘어날 것”이라며 “특히 신규 생산 설비 가동이 본격화되는 시점을 전후로 LNG선 수요가 단계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 HJ重-LIG-HD현대, 전투용 USV 개발 맞손

(무인수상정)

컨소시엄 통해 국기연 과제 수주  
HJ重, USV 플랫폼 설계·제작 맡아

HJ중공업이 해군의 미래 핵심 전력으로 꼽히는 전투용 무인수상정(USV)의 통합제어 및 자율임무체계 핵심기술 공동 개발에 나선다. 국내에서 전투용 무인수상정 핵심기술 개발이 본격 추진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HJ중공업은 LIG넥스원, HD현대중공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전투용 USV 통합제어·자율임무체계 핵심기술’ 과제를 수주했다고 23일 밝혔다. 무인수상정 검증용 플랫폼의 설계·건조를 위한 과제 협약도 국기연과 체결했다.

전투용 무인수상정은 탐승원 없이 원격 조종 또는 자율운항으로 해상에서 탐색·감시·정찰 및 교전 임무를 수행하는 무인 전투정이다. 인명 피해를 줄이면서 인공지능(AI) 기반 자동화 기술로 임무



전투용 무인수상정 해감-X 조감도. /LIG넥스원

수행 효율을 높일 수 있어, 향후 해양 무인 복합체계의 핵심 전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방위사업청과 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추진하는 이번 과제는 전투용 무인수상정 Batch-II 체계개발에 필요한 기술 확보가 목적이다. 해군 유무인 복합전투체계(Navy Sea GHOST)의 핵심 축이 될 무인수상정 개발을 위한 기반 기술로도 평가된다.

LIG-HD-HJ 컨소시엄은 이번 과제를 통해 통합제어체계와 자율임무체계

핵심기술을 검증할 수 있는 대형 무인수상정 플랫폼을 건조할 예정이다.

HJ중공업은 LIG넥스원과 HD현대중공업과 협력 체계를 구축해 사업 참여를 준비해 왔으며,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제안서 평가를 거쳐 지난 8월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역할 분담도 명확하다. HD현대중공업과 HJ중공업은 무인수상정 플랫폼의 설계·제작을 맡고, LIG넥스원은 플랫폼과 핵심 구성품을 통합하는 통합제어체계, 무장통제체계, 자율임무체계 개발을 통해 성능 검증과 고도화를 추진한다.

HJ중공업 관계자는 “선진국들은 무인수상함정 개발과 유무인 전력의 통합 운용을 통해 작전 수행 능력을 강화하는 추세”라며 “고성능 전투용 무인수상정 핵심기술 개발에 적극 참여해 K-방산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유혜은 기자 dhalehdale@

## 한화오션, ‘신안우이 해상풍력사업’ EPC 도급 계약

친환경 에너지 인프라 분야 사업 확장

한화오션이 해상풍력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든다.

한화오션은 전남 ‘신안우이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설계·조달·시공(EPC) 도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계약은 한화오션과 현대건설이 공동 수행하며 총 계약금액은 2조6400억원이다. 이 가운데 한화오션 몫은 1조9716억원이다.

신안우이 해상풍력사업은 전남 신안군 우이도 남동쪽 해역에 390MW 규모 해상풍력 단지를 조성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한화오션은 그동안 주요 인허가 확보와 주민 수용성 제고 등 개발 전반을 주도해 왔으며, 한국중부발전·현대건설·SK이티닉스가 주주로 참여



신안우이 해상풍력 조감도. /한화오션

했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주선기관으로는 산업은행과 국민은행이 선정돼 후속 절차가 진행 중이다. 산업은행과 5대 시중은행이 국내 신재생에너지 투자를 위해 조성한 미래에너지펀드는 지분출자와 후순위 대출을 포함해 544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한화오션은 PF가 내년 초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했다.

한화오션은 이번 사업을 통해 국내 산

업 활성화와 신규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해저케이블, 하부구조물 제작, 해상 설치 등 핵심 공급망에 국내 기업을 협력사로 참여시키겠다는 구상이다. 또 국내 최초로 15MW급 터빈 설치가 가능한 풍력발전기 설치선(WTIV)을 직접 건조해 신안우이 사업에 투입할 계획이다.

필립 레비 한화오션 에너지플랜트사업부장(사장)은 “신안우이 해상풍력 EPC 도급계약은 한화오션이 조선·해양을 넘어 친환경 에너지 인프라 분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설계부터 시공·설치, 운영까지 아우르는 EPCIO(해양 신재생 사업 일괄도급) 역량을 바탕으로 국내 해상풍력 산업 생태계 활성화와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유혜은 기자

## 삼성重, LNG 운반선 2척 7430억 계약

누적 132척·74억달러 규모 수주

삼성중공업은 오세아니아 지역 선주와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2척을 7430억원에 계약했다고 23일 공시했다. 해당 선박은 오는 2029년 3월까지 순차적으로 선주사에 인도할 계획이다.

이번 계약으로 삼성중공업은 올해 들어 LNG운반선 9척, 셔틀탱커 9척, 컨테이너운반선 9척, 에탄운반선 2척, 원유운반선 11척, 해양생산설비 예비작업계약 1기 등 총 74억달러 규모를 수주했다.

조선 부문은 선종 포트폴리오를 다변

화해 안정적으로 일감을 확보하며 올해 66억달러를 수주, 목표치(58억달러)를 초과 달성했다. 해양생산설비는 예비작업의 후속 절차와 신조 1기 계약을 조속히 마무리할 예정이다.

올해 들어 이남까지 삼성중공업의 누적 수주잔고는 132척(283억달러)을 기록했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충분한 수주잔고를 기반으로 수익성 중심의 수주 전략이 주효했다”며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혜은 기자

## LS전선, ‘LSEVK 풋옵션 이행’ 반소 제기

케이스톤파트너스 소송전 본격화

LS전선은 사모펀드 케이스톤파트너스가 제기한 LSI브이코리아(LSEVK) 풋옵션(매수청구권) 이행 소송과 관련해 투자 계약상 권리·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반소를 제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반소는 LSEVK 투자 유치와 상장 추진 과정에서 상장 무산에 대한 LS전선의 책임이 존재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풋옵션 채무 역시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해 달라는 취지다.

LSEVK는 지난해 9월 코스닥 상장을

목표로 예비심사를 진행했으나 심사 과정에서 케이스톤파트너스가의무보유확약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신청이 반려돼 상장 절차가 중단됐다.

LS전선은 해당 사안이 풋옵션 행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사측은 “예상 공모가가 적격상장 기준에 미치지 못했음에도 케이스톤파트너스의 요청에 따라 상장을 추진했기 때문에 LS전선의 고의나 중과실은 없었다”며 “상장 무산의 책임은 의무보유확약을 이행하지 않은 케이스톤파트너스에 있다”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 메이사, 97억 규모 프리 IPO 유치 성공

KAI, 전략적 투자자 참여… 2대 주주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전략적 투자자로 참여한 드론·위성 공간 분석 인공지능(AI) 기업 메이사가 97억 원 규모의 프리 IPO(상장 전 지분 투자) 유치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투자를 포함한 메이사의 누적 투

자유치 금액은 350억 원에 달한다. 메이사는 확보한 자금을 바탕으로 사업 고도화에 속도를 내 내년 하반기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KAI는 현재 메이사의 2대 주주로, 지금까지 총 80억 원을 투자하며 국방 소프트웨어와 우주 사업 전반에서 기술 협력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유혜은 기자